

【BBS불교방송 신사옥 건립불사 영상 메시지】

1990년 5월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첫 전파를 송출한 불교방송은
그동안 산사의 풍경소리부터 도심 포교당의 기도소리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친숙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건전한 교양과 유익한 오락, 그리고 뉴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공익적 이념을 실현하는데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BBS 불교방송은 오랜 라디오 방송 경험을 발판으로
2008년 BBS TV를 개국해 본격적인 영상 포교시대를 열었고,
어느덧 전국방송의 면모를 갖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송 포교의 확장에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은 아직 사옥이 없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대에 맞추어 쉽고 널리 전달하고
다양한 불교 콘텐츠를 위해서는 사옥 건립이 절실합니다.

불교계 유일의 공익방송재단 불교방송의 신사옥 건립 불사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부대중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모두의 공덕속에서 불교방송이 건실하게 성취를 이루고
다시 사회와 시민의 행복으로 회향하기를 기원합니다.